산업통상자원부 / I·SEOUL·U	보 도 자 료	REN21 RENEWABLES NOW

2019년 10월 23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10.23(수)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0. 22.(화)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신에너지산업과
담당과장	이용필 과장(044-203-5360) 최연우 과장(044-203-5390)	담 당 자	장미연 사무관(044-203-5391) 이기헌 사무관(044-203-5362)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개막 !

- 글로벌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에너지 분야 리더들 한자리에 -
- 한국형 에너지전환 2주년 경험과 성과 전 세계에 전파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10.23일(수), 코엑스에서 재생에너지 분야 국제 컨퍼런스인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개막식을 REN21*, 서울시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공식 명칭 : KIREC(Ko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Seoul 2019
* 연혁 : ('04)독일, ('05)중국, ('08)미국, ('10)인도, ('13)UAE, ('15)남아공, ('17)멕시코
* REN 21 :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정부, 국제기구, 업계, 시민사회 및 학계와 연구단체와 협업하는 국제 정책 네트워크)

○ 세계재생에너지총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민간 재생에너지 컨퍼런스**로, 금번 총회에는 **전세계 108개국, 3,500여명**이 참여하며,

○ 특히, 중국, 미국, 독일 등 **59개국 정부인사**, IRENA 등 **19개 국제기구**, 세계 **28개 도시의 대표**, **다수 국내외 기업**이 참석하여 세계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진다.

<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 개요 >

□ **기간/장소** : '19.10.23(수) ~ 10.25(금), 코엑스 및 인근 호텔
* 10.22(화) : 부대행사, 10.25(금) 오후~26(토) 사이트 투어
□ **주 최**: 산업부, 서울시, REN21 (* 주관: 한국에너지공단)
□ **참가규모**: 약 3,500명 (해외 107개국 1,000여명, 국내 2,500여명)
□ **주요일정**: 1일차 개막식, 2일간 5개 트랙에서 각 6개 세션 토론

□ **성윤모 장관**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전세계적인 혁신적 트렌드"**라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세 가지 혁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첫 번째는 **'기술의 혁신'**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 재생에너지와 수소의 융합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술혁신이 에너지 패러다임을 **'유한한 부존자원'**에서 **'지속가능한 기술자원'**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두 번째는 **'시장의 혁신'**으로,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공급자** 중심에서 **기업·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 세 번째는 **'주체의 혁신'**으로, 재생에너지 확산에 **지역 사회,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역대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게 된 금번 **총회의 의의를 설명**하였다.

□ 공동 주최기관인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들이 각 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선도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 서울시는 에너지 수요 감축과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원전 하나' 만큼의 에너지를 줄여나가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1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22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발전(發電)하고 태양광 산업이 발전(發展)하는 세계 최고 **"태양의 도시, 서울"로 탈바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REN21**(신재생에너지정책국제단체) 아소로 제르보스(Arthourous Zervos) 의장은 축사에서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하고,

○ "특히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에너지의 39%를 소비**하며, **온실가스 배출의 45%를 차지**하는 등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에 대한 잠재력이 매우 커, 금번 **한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재생에너지총회의 의의가 더 크다"** 고 강조하였다.

○ 한편, REN21은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에 대한 주요 기여로서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 및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와 공동으로 '2019 아시아 태평양 현황 보고서'를 출간하였다고 밝혔다.

- 동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및 지역의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기조연설, 특별연설, 고위급 토론** 등을 통해 에너지전환 및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한 참석자들 간 공감대를 이루고, **'서울 이니셔티브' 선언**을 통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금번 총회를 계기로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선포하였다.

① **기조연설 :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

* 국가기후환경회의 : 미세먼지에 대한 범국가적 대책 및 주변국과의 협력 모색을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19.4), 정부·시민단체·정당·학회 등 42명 위원 구성

- 반기문 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전환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인류는 문명 발전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기후 위기를 발생시켰고, 환경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 **유엔의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파리 협약**은 에너지전환의 성공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향후 화석·원자력 등 기존 에너지보다 시장성, 사회·건강적 측면에서 이로울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세계 푸른 하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Blue Sky)'처럼,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 한국이 이룩한 첫 번째 한강의 기적은 환경에 부담을 준 방식이었으나,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가자"고 기조연설을 마무리하였다.

② 특별연설 : 청소년 기후행동 소속 김도현 학생운동가

* 스웨덴의 환경운동가 그레타툰베리(16)의 1인시위 이후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30여국의 청소년 160만명이 동참 중, 한국에서는 '19.3.15/5.24/9.27 3차례 결석시위 개최

○ 김도현 학생은 "**기후 위기에 대한 기성세대의 대책촉구** 및 **미래 세대가 보는 에너지**"를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였다.

-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환경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이며, 이러한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대표하는 **기성세대들이 대책을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 청소년기후행동의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처럼 "**청소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하고 행동해 달라**"고 연설하였다.

③ 고위급 패널토론

* 고위급 토론 참석자
정부대표 : 한국, 중국, UAE, 몽골, 캄보디아, 독일
국제기구 :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
글로벌기업 : Vestas, GIG, 한화큐셀, IHS Markit, 비정부기구 : 그린피스 등

○ 토론은 두 번에 걸쳐 **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전환을 위한 비전**(주요국 장차관, 국제기구) **②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접근성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촉진**(글로벌기업, 비정부기구 등) 이라는 주제로 논의 되었다.

○ **성윤모 장관**은 **토론의 첫 발언자**로서, **한국의 에너지전환 추진 방향**과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 발언하였다.

- "한국은 화석연료 및 원전에너지에 기반하여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기후 위기 및 에너지 리스크가 증가하여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의 에너지전환은 **첫째,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효율 혁신을 병행 추진**하여 태양광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에너지소비를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 **둘째**, 지방 정부와 주민,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셋째**, 재생에너지분야 적극적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 또한 중국, 몽골과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 추진** 등 국제협력을 가속화하고 IRENA 등 국제기구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 고 언급하였다.

○ 아랍에미리트 기후환경부 파하드 알 함마디(FAHED ALHAMMADI) 차관은 **자원부국인 “아랍에미리트도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며, ‘17년 ’**에너지전략 2050**‘을 수립하여 **전체 에너지 믹스에서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50%**(재생에너지 44%)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하였다.

- “또한, IRENA-아부다비 개발기금(Abudhabi Fund for Development, ADFD)이 협력하여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대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선제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해 온 **독일**의 연방경제에너지부 토스튼 헤르단(Thorsten Herdan) 실장은 “독일은 ‘04년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최초 개최국**으로서 **금번 한국의 총회 개최를 지지한다**”고 언급하고,

- “독일은 전력의 4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고 있으며, **성공적 에너지전환**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서 국내총생산이 동시에 증가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혁신적인 산업으로서 일자리와 지역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그 밖에도, **몽골** 에너지부 다바수렌 체렌필(Davaasuren Tserenpil) 장관, **중국** 국가에너지국 류 바오 화(LIU BAOHUA) 부국장, **캄보디아** 광업에너지부 툰 린(Tun Lean) 차관은 각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각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언하였다.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Francesco La Camera) 사무총장은 “글로벌 에너지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파리기후협약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달성할 만큼 빠르지는 않으며**,

-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이 에너지와 관련된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으로 본다.“고 언급하였다.

○ 덴마크의 풍력 전문기업인 **베스타스**의 모튼 뒤홀름(Morten Dyrholm) 수석 부사장은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법·제도 체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HS Markit** 글로벌 전력 및 재생에너지본부 시저우 저우(Xizhou Zhou) 전무는 “**2050년에는 전 세계 발전량의 50%, 신규 발전 설비의 95%를 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 “향후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혁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활용 확대** 등이 에너지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혁신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 환경단체 대표로서 **그린피스** 동아시아국 이현숙 국장은 **에너지의 전환을 위한 시민 참여의 중요성**과 시민들의 역할이 국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④ 서울 이니셔티브 선언

○ 총회 추진위원회는 **개막식 마지막**에 “**서울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 **제8회 세계재생에너지총회 참석자**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설계, 지역사회의 역할 발굴, 혁신 기술과의 융합 등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도출**하는데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장미연 사무관(☎ 044-203-5391),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기헌 사무관(☎ 044-203-5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2019 세계재생에너지 총회 개요

□ 명칭 :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KIREC Seoul 2019)

* Ko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Seoul 2019

< 세계재생에너지총회(IREC) 개요 >

○ **주최** : REN21(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 UNEP, 독일정부지원)과 개최국 정부 공동 주최

- ('04) 독일, ('05) 중국, ('08) 미국, ('10) 인도, ('13) UAE, ('15) 남아공, ('17) 멕시코

○ **목적** :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보공유, 정책개발을 위한 정부 간 협력

○ **주요행사** : 고위급 회의, 전시회, 산업시찰 등

□ 기간·장소 : '19.10.23(수) ~ 10.25(금), 코엑스 및 인근 호텔

* 10.22(화) : 부대행사, 10.25(금) 오후~26(토) 사이트 투어

□ 주최 : 산업부, 서울시, REN21 ※ 역대최초의 중앙·지방정부 공동주최

* 주관 : 한국에너지공단 / 협력 : 신재생E협회, 서울에너지공사, GGGI

□ 참가규모 : 약 3,500명 예상(해외 108개국 1,000여명, 국내 2,500여명)

□ 주요일정(안) : 3일간 5개 트랙* 중심 진행

* ❶정책 및 시장설계, ❷도시(서울시운영), ❸금융, 기술 및 산업화, ❹혁신적인 신에너지시스템, ❺ Special Issue(사회경제적 효과 등)

< 주요 행사 구성 >

<table>
<tr><th>구분</th><th>10.22(화)</th><th>10.23(수)</th><th>10.24(목)</th><th>10.25(금)</th><th>10.26(토)</th></tr>
<tr><td rowspan="2">오전</td><td rowspan="6">부대
행사</td><td>개막식</td><td rowspan="4">5개 트랙 운영</td><td rowspan="2">5개 트랙 운영</td><td rowspan="6">산업
시찰</td></tr>
<tr><td>고위급 패널
I-①, I-②</td></tr>
<tr><td rowspan="4">오후</td><td>Open Talks</td><td>폐막식(시상식)</td></tr>
<tr><td>특별대화</td><td>환송오찬</td></tr>
<tr><td>5개 트랙 운영</td><td>고위급 패널 II</td><td rowspan="2">산업시찰</td></tr>
<tr><td>환영리셉션</td><td>환영만찬(갈라디너)</td></tr>
</table>

참고 2 서울 이니셔티브 선언문

The Republic of Korea and REN21 is proud to host the Korea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Conference (KIREC) Seoul 2019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

1) to increase awarenes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use which can address climate challenges,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create a sustainable future;

2) to form a stronger consensus on the need to further expand renewable energy to achieve universal access to clean, safe, and affordable renewable energy; and

3) to combine the efforts of KIREC Seoul 2019 participants to identify innovative ways to accelerate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with renewable energy by sharing their knowledge and expertise on:

- Effective policy desig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inancial structures that support the energy transition
- harnessing the leading role of cities to drive renewable energy uptake
- applying innovative technologies, such as renewables-based hydrogen and smart grids

< 참고 : 비공식 번역 >

대한민국 및 REN21은 KIREC Seoul 2019를 개최하여,

1) 기후위기 극복, 환경오염 저감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제 사회와 인식을 공유하고,

2)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전 인류의 보편적 접근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힘쓰며,

3) KIREC Seoul 2019 참석자 모두는 아래에 대한 경험과 성과를 적극 공유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글로벌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도출하는데 노력한다.

① 에너지전환을 지지하는 합리적 정책 설계, 기술 개발, 금융 설계

②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도시 지역의 주도적 역할 발굴

③ 수소 기반 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혁신 기술과의 융합